

# 국립공원을 보는 생물지리적 시각<sup>1)</sup>

공우석(경희대학교 이과대학 지리학과)

## I. 들어가는 말

2000년대 들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 최근에는 휴식, 건강과 문화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연을 찾아 지친 심신을 치유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잘 보전된 국립공원을 찾는 발길이 잦다.

국립공원관리공단(<http://www.knps.or.kr>)에 의하면 2007년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고 웰빙(well being)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걷기 바람까지 가세하면서 국립공원의 탐방객 숫자는 급증하였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부과되었던 2006년도에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탐방객은 2,494만 명이었으나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에는 탐방객이 3,797만 명으로 53.2%나 급증했다. 국립공원 탐방객은 2010년부터 4,000만 명을 넘어서고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회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2년에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

되어 2016년 2월 현재 전국에는 21개의 국립공원이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4,533만 명으로 2014년 대비 2.3% 감소하였다. 이는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 분위기와 강우일수 증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로 탐방객 출입을 통제 등을 원인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분석하였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숫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교란되는 안타까운 광경을 아직도 볼 수 있다. 국립공원을 자주 찾는 탐방객들조차도 자연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배우기보다는 쉽고 편하게 즐기려는 요구를 늘려가고 있다. 국립공원을 이용하는데 자신의 편의와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책무는 뒷전으로 밀쳐두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 골프장, 관광과 레저 목적의 편의 시설, 도로 개설 등 지역 개발 사업을 국립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추진하면서 중앙 정부, 시민단체, 국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13

1) 이 글은 2013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2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는 보전과 이용이 충돌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서는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변화, 국립공원이 입지하는 백두대간과 섬의 생물지리적 의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립공원의 위상 그리고 국립공원을 보는 새로운 시각 등을 살펴보았다.

## II.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변화

우리 국립공원 내에 분포하는 생물종은 식물은 3,308종, 포유류 59종, 조류(330종), 양서류(17종), 파충류(24종), 어류(322종), 곤충(7,654종) 등 모두 15,876종에 이르며, 그 중 246종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국립공원 내에는 생물자원 외에도 다양한 경관자원과 문화역사자원이 분포한다(<http://www.knps.or.kr/front/portal/stats/statsDtl.do?menuNo=7070020&refId=REFM000052&page=1&searchAllValue=>).

현재 국립공원은 바다와 섬을 포함한 해상공원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안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 사적공원인 경주국립공원 등 4곳을 제외하고는 17개 국립공원이 산악형 공원으로 산지에 입지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아 지속적으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였다. 오늘날에도 국립공원과 인접 지역의 산지에서는 인위적인 간섭과 이용에 의하여 자연 경관이 파괴되고 훼손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광산, 채석장,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 고속도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산악도로, 임도, 군사시설, 석도, 등산로, 묘지 등의 건설, 먹는 샘물 개발, 산지에 설치된 각종 인공구조물, 숙박업소, 음식점, 휴양, 레저시설, 농축산 토지이용, 종교 시설, 쓰레기와 쓰레기 매립장, 산불 등 개발에 의해 자연생태계와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있다.

산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산야초의 남획, 임산 부산물의 과다 채취, 야생동물 포획, 가축과 반려동물의 유기, 서식지 파괴, 가축 방사, 벌

목, 나무 심기, 외래종 유입 등으로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산지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와 법령이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산지와 섬 그리고 해안의 개발에 따른 훼손과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공우석, 2007).

국립공원 내에서는 법률에 의해 각종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지만 탐방객과 거주자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등에 따라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을 개발과 이용에 대한 민원성 요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설악산 정상부 가까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로 환경 파괴와 동식물생태계 교란과 훼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 III.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우리나라는 김제평야 한 곳 정도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는 지평선 대신 높고 낮은 산들이 자리 잡고 있다. 건국 신화에서도 산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위치하는 산과 섬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일상생활 그리고 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산자락에서 자식 갖기를 빌었고, 태어난 사람은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산을 산에서 구하였다. 사람들은 산기슭 양지 바른 곳에 집터를 자리 잡았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다시 산자락에 묻혀 자연으로 되돌아갔다. 따라서 산은 생명탄생의 시발점이자,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근원이요, 생명의 끝이었다. 한반도에 발달하는 산의 중심에는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이 있다.

남한 쪽 백두대간 상에는 설악산(雪嶽山), 오대산(五臺山), 소백산(小白山), 월악산(月岳山), 속리산(俗離山), 덕유산(德裕山), 지리산(智異山) 등 7개 국립공원이 위치한다. 백두대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정맥의 산줄기에도 북한산국립공원(한북정맥), 내장산국립공

표 1. 국립공원의 지리적 분포 유형

구분	국립공원 명칭
백두대간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등 7개소
연계된 정맥 산줄기	북한산(한북정맥), 내장산(호남정맥), 무등산(호남정맥), 계룡산(금남정맥), 주왕산(낙동정맥), 경주(낙동정맥) 등 6개소
기타 산지	가야산, 월출산, 치악산 등 3개소
섬	한라산,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3개소
해안과 인접지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2개소

원(호남정맥), 무등산국립공원(호남정맥), 계룡산국립공원(금남정맥), 주왕산국립공원(낙동정맥), 경주국립공원(낙동정맥) 등이 있으며, 가야산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치악산국립공원 등도 산지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섬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고,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이 자리한다(표 1).

그러나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지리산에 이르는 백두대간과 인접한 산지, 섬과 해안에 흩어져 있는 국립공원들은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곳곳에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백두대간의 거의 모든 산마루, 산등성이와 골짜기는 골프장, 스키장, 고속도로, 고속철도, 산악도로, 임도, 광산, 채석장, 군사시설, 통신시설, 공장, 마을, 인공댐, 채수장, 양수발전소, 고랭지 채소밭, 인공 구조물, 묘지 등 각종 개발과 이용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산지가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

사람의 발길이 다다르는 곳에서는 산나물과 임산물을 채취하고, 벌목하며, 야생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한 결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인도에도 염소 등 방목한 가축들에 의해 식생이 초토화되고 동물생태계까지도 교란되기도 한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의 산과 섬에 자라는 소나무,

잣나무, 곰솔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병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신갈나무 등 낙엽활엽수도 참나무시들음(*Raffaëlea quercus-mongolicae*)병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가 깨질 위기에 있다.

한반도의 남북을 이어주는 생명줄이자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며 백두대간에 분포하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과 연계되는 산줄기 그리고 섬과 해안에 위치한 국립공원들은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을 측면에서 생물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국립공원은 현 세대의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요구에 대응하기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여유 공간으로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위치한 백두대간 상의 산들과 섬을 올곧은 모습으로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 부처 간, 지방 정부 간,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종합적인 국립공원 보전 관리와 이용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백두대간과 섬들의 경관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립공원 권역을 확대하고 추가 지정하는 노력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국립공원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에 강원도 태백

산, 전남 신안-무안갯벌, 대구-경북의 팔공산 등 국립공원 지정을 희망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셋째, 국립공원의 파괴를 가져오는 과도한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엄정한 보전 기준에 따른 국립공원 내 행위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공원과 관련된 정책에 실행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등 책임행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물종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고 국민들과 공유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민과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국립공원 관련 교육, 홍보, 보호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백두대간의 산과 강 그리고 섬들은 야생동식물의 생활 터전이므로, 이들 산지와 섬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동식물의 서식, 이동, 번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생활공간을 확보해 주고, 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生態通路, ecological corridor)와 피난처(避難處, refugia) 등 에코 네트워크(eco network)를 구축하는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진부령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북한 쪽 백두대간과 보전지역의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고 남북한 공동의 학술 조사와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백두대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물종을 복귀하여 통일 이후를 국토 관리에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곱째, 우리의 축적된 국립공원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공격개발지원(ODA)과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제3세계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장을 넓혀야 한다.

여덟째, 산지와 도서 개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외래생물종 도입과 확산에 따른 희귀종, 멸종위기종, 재래종의 쇠퇴 등 환경변화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IV. 변화하는 기후와 국립공원의 대응

우리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범지구적인 현안인 기후변화이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수자원의 불안정, 산업 환경의 변화, 국민 보건의 위협, 주거환경과 농업 등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공우석, 2012).

현재 지구온난화가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와 피해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국립공원 연구원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현상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지구온난화가 산지, 해안, 도서, 문화유적지, 대도시 등에 인접한 다양한 형태의 국립공원의 자연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생태적 약자인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등 고산대와 아고산대를 포함하는 국립공원 내에 분포하는 한대성(寒帶性, cold tolerant) 극지·고산식물(極地高山植物, arctic-alpine plant)과 고산식물(高山植物, alpine plant)과 같은 생태적 약자와 함께 습지, 해안선, 고립된 섬 그리고 비무장지대 등 취약한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등 높은 산지가 있는 국립공원에 출현하는 극지·고산식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백만 년 전부터 시작되어 1만 년 전까지 지속된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 또는 홍적세 빙기(氷期, glacial period) 동안 혹독한 북극 주변의 추위를 피해 남하하였다가 홀로세(Holocene) 또는 후빙기(後氷期)에 들어서 차가운 기후가 유지되는 곳에 정착한 유존종(遺存種, relict species)이다.

이 식물들은 빙기에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한 한반도 산록의 저지대나 해안 주변에 정착하여 1차 피난처에서 빙기를 지낸 것들이다. 이들은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

부터 본격화된 홀로세 또는 후빙기에 들어서 기온이 상승하자 빙기 때 살던 서식처에서 밀려나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한랭한 기후가 보장된 백두대간 상의 북부, 중부, 남부의 산정 일대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 정상 일대를 2차 피난처로 삼아 살아남아 지금은 고산대나 아 고산대에 고립 격리되어 분포한다(공우석, 2007).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따뜻한 기후조건을 선호하는 난대성 식생대가 확장되는 반면 추운 기후에 적응한 한대성 식생대는 쇠퇴하고, 식물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동물의 서식처가 교란되는 등의 다양한 생태적 부작용이 나타난다. 특히 고산대, 아고산대, 해안, 도서 등 국립공원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한대성 동물이나 식물이 이동할 이동 통로나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된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취약한 고산식물, 고유종, 희귀종, 멸종위기종, 산호초, 연안 습지, 섬의 생물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봄철 및 여름철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산불 및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가 증가한다. 산림 병해충의 발생 세대수가 증가하고 외래 병해충이 들어와 퍼진다. 일부 곤충은 예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하여 해충으로 바뀌었다(공우석, 2012).

기후변화 외에 식물의 분포와 식생대의 이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로 산맥, 강, 바다 등의 지리적 요인 외에 국토 개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인위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서식처가 감소하고 분할 또는 파편화(碎片化, fragmentation)되면서 식물들이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 성공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다. 인위적인 간섭과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단절에 따른 생태계 교란 현상은 산지에 주로 발달하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V. 국립공원을 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나라와 같이 단위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상황에서는 국립공원을 미

래 세대를 위해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 1.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는 국립공원

국립공원을 비롯한 우리의 산지는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자연생태계와 생물종 다양성 유지 및 보전에 큰 역할을 하였고, 미래에 닥칠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완충하고 극복하는 데에도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자연 유산이다.

그러나 우리의 산지 경관은 근시안적인 정치경제 논리에 따른 인간 중심적인 이용과 개발에 따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산이 근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자연 생태계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까지도 위협을 받는 등 우려할 수준에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정책은 당대의 요구와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 결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은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여건을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전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 2. 자연과 자연을 이어주는 국립공원

신생대 제4기 빙기 때, 지금보다 기후가 한랭했을 때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동물과 식물의 이동 통로와 피난처로 이용되었다. 오늘날 한반도는 당시에는 동북아시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해안지역으로 생물들이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피난처인 서식처와 조건을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개개의 국립공원이 잘 보전되더라도 단위지역 내에서 발생한 자연생태적인 부담을 지역 내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 지역으로 이동 적응하여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21개 국립공원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국립공원에서의 부담이 지역과 주변에서 수용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미래의 국립공원 관리는 독립적으로 국립공원을 중심



으로 한 핵심지역(核心地域, core zone)을 체계적으로 관리되 주변 완충지역(緩衝地域, buffer zone)과 점이지역(漸移地域, transitional zone)과 연계하여 이용과 보전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 사이 또는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혹은 기타 보전지역을 서로 연결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자연생태계 네트워크(network)가 구축되어야 한다.

### 3.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백두대간의 남쪽 구간인 지리산 응석봉에서 출발해 설악산 진부령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의 등산가들이 밟고 싶어 하는 꿈의 산행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마지막 남은 장소이다. 등산애호가들 꿈인 ‘백두대간 종주길’ 개방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된다.

백두대간을 이어주는 마루금 또는 주능선은 취약한 고산과 아고산생태계가 실낱 같이 이어지는 생명줄로 답압(踏壓, trampling)에 취약한 자연생태계이다. 산정부와 마루금은 쉽게 손상되고 일단 훼손되면 자연적인 복원이 더디거나 불가능하고 주변 지역에도 적지 않은 자연생태적 부담과 피해를 가중시키게 되므로 이용보다는 적극적인 보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백두대간의 탐방이 꼭 필요하다면 백두대간에 인접한 마을과 마을을 주민들이나 보부상 등이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능선의 산길을 이용하는 둘레길을 문화생태길로 복원하여 탐방객도 이용하면서 쇠락한 산촌도 살리고 환경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공우석, 2015).

### 4.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개발의 사례로 케이블카

최근의 국립공원에 이용과 보전이 대립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이다. 2010년부터 장거리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케이

블카 길이 제한을 종전 2km 이내에서 5km 이내로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됐다. 길이 제한에 묶여 중단된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현재 10곳 이상의 지자체가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표 2). 전국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경단체(<http://www.npcn.or.kr>)와 전문가들이 입장을 달리하면서 다투는 일이 많다.

표 2.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추진 계획 현황

국립공원	추진 주체	노 선
설악산	강원 양양군	오석약수~대청봉 4.7km
	강원 속초시	소공원~화채봉 4.9km
	강원 고성군	대명콘도~울산비위 1.48km
	강원 인제군	미 정
북한산	서울 강북구	우이동~영봉 2km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성~보현봉 4.2km
지리산	경남 산청군	중산리~장터목 4.5km
	전남 구례군	지리산 온천~성삼재 2.7km
	경남 함양군	청암산~제석봉 3km
	전북 남원시	고기3거리~정령치 4km
속리산	충북 보은군	법주사~문정대 5km
월출산	전남 영암군	천황주지장~광암터 3km
소백산	경북 영주시	미 정
한라산	제주도	영실~윗세오름 3.9km
다도해	전남 진도군	조도~조리산 2.9km
한려해상	경남 거제시	외도~내도 3km

(자료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케이블카 건설과 자연생태계 보전이라는 명분을 고려하면 국립공원 권역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다면 국립공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케이블카 건설 등 지역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굳이 국립공원 구역 내가 아닌 국립공원 경계 밖에서 국립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향토 문화를 체험하고 특산물을 구매하고 자연도 즐기는 등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고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를 가지며 환경을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새로운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 한라산 정상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기대하는 사람들보다는 높고 낮은 오름과 해안선, 들길을 이어주는 올레길의 경관을 찾아 자연과 향토문화를 체험하려는 수요가 많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 VI. 맺는 말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유산을 건전하게 보전하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개발에 앞서 미래 세대의 선택을 배려하며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립공원 관리는 개개의 국립공원 하나를 단위지역으로 보는 미시적인 관점과 함께 국립공원 전체를 연계해서 보는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척추가 되는 백두대간, 허리가 되는 DMZ, 생태축을 이어주는 근육과 같은 여러 보전구역 그리고 국토의 보호막인 동해, 남해, 서해의 해안선과 섬들을 연결하는 시각에서 광역적 국립공원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세대에 당면한 단기간의 이해관계를 앞장 세워 국립공원의 자연과 생태계를 훼손하고 개발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용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하고 알찬 탐구,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국립공원 경계 내에 개발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건축하고 확장하거나, 케이블카를 신설하는 문제는 장기적이고 자연환경 특성과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득과 실을 따져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국립공원 탐방객의 편의와 지역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원 구역 내보다

는 인근 지역의 잠재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탐방객과 주민이 상생하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자연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는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경관은 한번 파괴되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복원보다는 예방적 보호 및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립공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생태적 약자로 국립공원 내 고산대에 격리되어 분포하는 극지·고산식물과 고산대와 아고산대에 자라는 고산식물의 운명은 위태로워진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멸종할 수 있는 한반도에 분포하는 생물, 생태계, 환경의 보전과 복원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학제적 연구가 시급하다. 특히 생태적 약자로 지구온난화로 위기를 맞게 될 극지·고산식물과 고산식물의 분포, 생태,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구온난화를 기회로 삼아 생장이 활발해지고 분포역을 확장하는 생태계 무법자인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과 조사 연구가 요청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개체 수가 폭증하고 분포역이 확장되고 있는 외래종을 중심으로 한 유해 생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외세가 우리의 산하에 남긴 상처와 피해에 대하여 분개하고 성토하였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 여러 이유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산과 강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교란되고,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자연을 대하는 마음과 행동에 우리들의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포함한 국토의 어느 산자락과 물줄기 그리고 섬들도 단견적인 사회의 요구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과 섭리를 배워야 할 수련과 탐구 학습의 장이다. 국립공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즐기고 쉬는 공간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깨우치고 자연과 문화

를 배우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무한한 미래적 가치를  
지닌 산과 강 그리고 섬들이 어우러진 국립공원을 후손

들에게 고이 넘겨주는 것은 자연 사랑의 첫걸음이고 미  
래 사회를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책무이다.

### <참고문헌>

공우석, 2007, 생물지리학으로 보는 우리 식물의 지리와 생태, 지오북.

공우석, 2012, 키워드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지오북.

공우석, 2013, 2013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20주년 세미나 자료집.

공우석, 2015,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국립공원, 국립공원 Issue & Report, 5호.

노정용, 2013,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수익원 없어 '경영 부실', 그린경제신문 2013.07.20.

국립공원관리공단 (<http://www.knps.or.kr>)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http://www.npcn.or.kr>)